

제주교육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해영* · 김유리**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제주연구의 개황
- III. 제주교육사 연구의 현황
 - 1. 관찬연구의 성과
 - 2. 개인연구의 성과
- IV. 제주교육사 연구의 과제
 - 1. 제주교육사 연구의 문제점
 - 2. 향후 연구과제
- V. 나가며

국문요약

본 연구는 그동안 제주교육사를 주제로 축적되어 온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여 정리함으로써 향후 지방교육사의 한 분야로 제주교육사 연구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였다. 먼저 제주교육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귀납적으로 검토하여 관찬연구와 개인연구, 시대별 연구상황과 10년 단위 연구상황을 살펴보았다. 결과 관찬연구가 개인연구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시대별로는 조선시대의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도내 학술지 논문이 도외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논문보다 많았고 10년 단위로 살펴본 연구상황에서는 1990년대 이후가

* 중국 연변대 교수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총 건수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연구는 물론 개인연구에 있어 꾸준한 연구와 더불어 연구의 폭과 깊이를 넓혀 연구 주제와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제주교육사 연구의 노력들이 모아질 때 지방교육사로서 제주교육의 정체성과 제주교육만의 교육사적 독자성을 확립하게 되어 제주교육사의 심층적 분석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 보아진다.

주제어 : 제주학, 제주교육사, 지방교육사, 관한연구, 개인연구.

I. 들어가며

교육사는 문명사의 일종으로 특히 교육에 관한 역사의 기술이다(이만규, 1988: 9쪽). 이러한 교육사의 연구에 있어 중앙중심의 체계모니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교육사의 가장 구체적인 노력은 1980년대 영남교육사 정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순목은 『영남교육사초(嶺南教育史艸)』(정순목, 1983a)를 비롯해 1983년 영남교육사를 통하여 지방교육사 정립의 과제를 제시하였다(정순목, 1983b). 이에 힘입어 관한사에 머물던 지방교육사를 학문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방교육사 연구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간의 연구업적을 수합하고 분석, 개관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이러한 학술정보파악은 학문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김종업 외, 1983: 285-286쪽).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교육사의 한 분야인 제주교육사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들도 검토, 정리하여 과제를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다. 어느 학문 분야나 마찬가지로이겠지만 그 동안 자신의 학문 영역에서의 연구성과 혹은 연구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용진 외, 2010: 155쪽)해주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사란 중앙교육사에 상대적인 개념이다. 과거 봉건국가에서 진행한 중앙 중심적이고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전통교육과 달리 지방교육사에 대한 이해는 어느 한 지방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사의 이해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하나는 한 지방의 교육문화적 특수성에서 출발하여 그 지역만의 독특한 교육을 그 지역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사에서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사 특유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교육사와의 연관성에서 출발하여 중앙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사에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중앙이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적 정책이나 제도 및 행정적 조치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교육사는 지방교육사의 범주에 속하므로 그 연구사의 분석 역시 이상 두 측면을 준거로 한다.

제주교육사는 지방학으로서 제주학의 하위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지방교육사의 한 분야이기도 하며 나아가 한국사 가운데 지방사의 하위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교육학의 하위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주교육사는 하나의 독립된 학문이면서 또한 다양한 범주에 종속되어 있는 학문이기도 하는 이중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교육사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정리 작업이기 때문에 또한 제주학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제주교육사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제주교육사의 구체적인 관한 연구와 개인 연구들을 시간적 순서로 정리하면서 그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로

써 제주교육사 연구의 현재 진행상황, 현존문제, 향후 전망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II. 제주연구의 개황

우선 제주교육사의 연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해방 후 제주도 관련 연구는 그 폭과 깊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도 연구결과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해 일정한 간격으로 정리 및 검토를 거치면서 연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해왔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67)>와 <제주학회(1978년 설립된 제주도연구회를 모태로 1997년 12월 개칭)> 그리고 <제주도사연구회(1989)>, 1997년 설립된 <제주학연구소> 등 학술연구기관 및 연구회 그리고 도내 외의 각 분야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제주지역 각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1996년 출범한 <제주발전연구원>의 다양한 활동이 특히 주목된다. 최근 그 일환으로 2011년 10월 제주발전연구원의 부설로 출범한 <제주학센터> 또한 제주학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한층 더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의 제주관련 연구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1982년, 1983년의 탐라문화 창간호와 제2호에 연이어 발표된 「해방 후 제주연구개관(解放後濟州研究概觀)」을 통해 어문학·민속학·역사·고고학분야의 연구 성과에 대해 종합 검토해 정리한 바 있다. 이것이 제주연구사 정리의 시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리들은 연구동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논저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어 1983년 12월 제2회 탐라문화학술회의에서는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역사학·고고학·민속학·사회학, 행정학 등 분야의 성과를 종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결과물을 탐라문화 제3호(1984)에 게재하였다. 이 가운데 역사적 측면의 연구에서는 통사류(通史類)의 교육 관련 업적을 제외한다는 언급과 함께 교육사에 관련된 내용은 현인홍(1966)과 강석규(1978)의 논문 두 편만 제시되어 실질적으로 제주교육사적 측면의 연구사는 간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1984년 제주도연구회에서 학술지 『제주도연구』 제1집을 발간함으로써 ‘지역연구 표본으로서의 제주도(張籌根, 1984)’에 대한 논의와 민속학(金榮敦, 1984)과 문화인류학(조혜정, 1984)적 측면에서의 제주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 1986년에는 제주신문사와 제주도연구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심포지엄의 주제인 ‘제주도사의 재조명’을 『제주도연구』 제3집에 집중 게재하면서 제주도 역사의 관련 연구들을 정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향토사 연구대상과 방법(慎鏞廈, 1986), 제주도 선사문화연구의 문제점(任孝幸, 1986), 조선 후기 제주도사 연구의 과제(權仁赫, 1986)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해인 1987년에는 제주신문사와 제주도연구회 공동주최로 ‘제주연구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때에는 인문·사회과학분야와 자연과학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그 중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는 제주도 방언(玄平孝, 1987), 탐라상고사(全京秀, 1987), 제주사회(申幸澈, 1987), 제주도 취락(吳洪皙, 1987), 제주관광(張聖洙, 1987) 등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역시 『제주도연구』 제4집의 특집내용으로 게재되었다. 또한 1988년에는 제주신문사와 제주도연구회의 제4차 공동 학술대회가 ‘국제화시

대의 제주도연구'라는 주제로 열리며 인문·사회과학(韓相福, 1988)과 자연과학 등 분야별로 제주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1991년에는 1989년 창립된 제주도사연구회가 기간지 『제주도사 연구』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제주역사에 관련된 논문을 수록하고 아울러 1980년대의 제주역사 연구에 대해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토기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고학분야를 포함해 고대·고려시대, 조선시대, 한말·일제시대 등으로 시대를 나누어 1980년대의 연구 성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 가운데 권인혁은 조선시대를 정리하면서 문화부분에 처음으로 교육사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1980년대의 노력을 거쳐 제주연구가 하나의 학문체계를 이루며 제주학으로 본격적인 정립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1995년 6월 지방자치제도의 출범으로 중앙집권체제하의 중앙중심적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¹⁾ 이로부터 지방학이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때까지 제주연구, 제주도연구로 불리던 제주 관련 연구들은 지방학의 한 분야로 제주학이 정립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제주학'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12월 <제주도연구회>의 학회명을 <제주학회>로 변경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유철인, 1996: 36쪽).

그 후 1996년 유철인에 의해 「지역연구와 제주학 :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가 정리되면서 학문적으로 제주학을 정립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시각으로 제주학을 정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8월 제주방송인클럽의 학술세미나로 '제주지방학의 연

1)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강신포의 지방자치와 지방학의 연구를 참조할 것.

구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주학에 대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어 전면 검토하게 되었다. 이어 1997년에는 전경수에 의해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이란 주제로 제주학에 대해 학문적 정립을 완성하게 되면서 일차적으로 문학을 중심으로 제주학의 연구방법(현길언, 1997)이 제시되게 되었다. 또한 1998년에는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에 대해 2차 논의를 하였다.

그 후 2007년, 2008년에도 제주학 연구 성과에 대한 정리와 방향 제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주문화연구에 대한 정리와 『탐라문화』를 중심으로 한 제주학 발전 방향의 제시, 제주학의 정립 방향과 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를 계기로 활성화 된 제주학 연구는 2012년 현재까지도 흐름을 계속하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 결과 그간 중앙중심의 교육사 연구로 인하여 다소 미약했던 지방교육사에 대한 연구 약점을 보완하게 되었고, 지방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198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온 제주학의 내용 속에는 민속학·인류학·언어학·문학·역사학·고고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제주도를 연구주제로 많은 연구물들을 정리하고 하나의 학문체계로 정립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연구물들이 그 행적을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교육사로서의 제주교육사의 연구정리이다. 때문에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중복연구를 피하며 새로운 연구 방향 및 과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의 제주 관련 연구의 정리에서는 교육학의 한 분야로서의 교육사에 관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교육사에 관련된 연구 업적이 상당히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그 과제와 연구방향 설정이 미흡했다. 물론 김종업(1984, 1986), 권인혁(1991)의 제주사 및 제주문화 관련 정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그것은 다만 역사학적인 접근일 뿐이지 하나의 체계를 갖추거나 독립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었다.

Ⅲ. 제주교육사 연구의 현황

1. 관찬연구의 성과

제주교육사에 관련된 관찬사의 대표적 유형은 대체로 도 단위나 그 산하의 각 기관, 부서에서 발행한 통사 및 단대사라 볼 수 있다. <표 1>은 1970년대로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관찬 교육사를 종합한 것이다. 그 가운데 통사류는 1970년대 2차례, 1990년대 2차례 총 4차례에 걸쳐 편찬되었으며 그 외에는 근·현대사가 위주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아직 통사류가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표 1〉 관찬 제주교육사 목록

연도	제목	발행
1974	『제주교육통사』	제주도교육연구원
1979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위원회
1987	『제주교육연혁지 I II』	제주도교육위원회
1991	『제주교육행정 발전사』	제주도교육청

1999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청
	『통계로 본 제주교육 100년』	제주도교육청
2002	『서귀포 교육 50년사』	제주도 서귀포 교육청
2004	『제주시 교육 50년사』	제주도 제주시교육청
	『북제주 교육 50년사』	제주도북제주교육청
2009	『사진으로 보는 제주교육 100년』	제주교육박물관
2011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그런가 하면 다른 유형의 공식적인 교육사 저술로 제주도 각 학교들에서 편찬하는 교지(校誌)를 들 수 있다. 초등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유구한 각 학교들은 교지를 통해 학교의 연혁과 발전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제주교육사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0년, 50년, 80년, 100년 단위로 편찬하는 다양한 교지들 가운데 특히 100년 단위로 진행되는 교지들의 편찬 작업은 제주도 근현대교육사를 표방하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테면 신성여학교100년사(2009), 대정초등학교100년사(2009), 제주농고80년사(1991)에 이어 1922년 신유의숙을 모태로 발전한 가파초등학교 85주년사(2006), 제주회복초등학교80년사(2007), 고등교육교지로서 제주대학교 30년사(1983)·40년사(1993)에 이은 50년사(2002), 제주교육대학40년사(1991), 제주한라대학40년사(2009), 제주고등학교100년사(2011) 등이 있다.

이러한 교지들은 제주도 교육사의 정책적 배경과 연혁을 기술하였고 제주도의 제도적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설립자문제, 설립연대문제 등과 같은 내용들을 공식화해 줌으로써 제주교육사의 정립과 체계화에 일조하고 있다.

그 외에 교육사만을 중심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교육사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관찬저술들이 있다. 제주도지(濟州道誌)를 비롯한 각종 시·군·읍·면 단위의 향토지들에서 교육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해방 후 발간된 역대 제주도지에서는 대부분 제주교육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1993년과 2006년 제주도지에서는 교육사의 내용을 역사적인 시대구분과 함께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남제주군지(2006), 구좌읍지(2000), 우도지(1996), 조천읍지(金旼奎, 1991), 위미리지(1991) 등 향토지들은 교육을 하나의 편(篇)을 할애하여 그 지역 교육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전에 출판한 향토지들에서도 교육사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2. 개인연구의 성과

1970년대로부터 간간히 연구되기 시작한 제주교육사에 관한 개별 연구는 초반에 주로 고장과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1980년대에는 교육학계 학자들의 연구 성과도 반영이 되면서 1990년대에 들어 많은 연구 결과물들을 내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그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제주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 교육학과에 박사과정과 동시에 하위 전공으로 교육사 전공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후학들에게 체계적으로 소개 및 학습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한층 더 깊은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제주교육사 관련 주요 연구자들을 본다면 강석규, 김종업, 김봉욱, 김용덕, 양진건, 고창석, 양철호, 문창규, 오송희 등의 학자들이 있다. 그 가운데 조선조 유배인들의 영향을 통한 제주교육사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의미를 밝혀낸 양진건의 연구가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의 연구를 비롯한 도내 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과 학위논문 및 단행본 등 49건의 결과물을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2〉 시대별 도 내외 연구 상황

단위: 건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비고
	도내	도외	박사	석사		
탐라상고사	2	1		1	3	삼국, 고려시대 포함
근세-조선	12	9	1	1		
근대	4	2		3		개화기, 일제강점기 포함
현대	3					미군정, 4.3, 6.25 포함
기타	3	1		3		

〈표 2〉는 부록에서 제시한 49건의 연구결과물들을 역사적, 시대별 그리고 학술지·학위논문·단행본의 구분으로 연구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근세인 조선시대의 연구가 확연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체 연구결과물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일한 박사학위논문이 조선시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개화기,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근대의 연구가 약 18%를 차지하고 있고 세 편의 석사논문이 나왔다.

학술지논문이 학위논문이나 단행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도내 학술지논문이 24건, 도외 학술지논문이 13건으로 대략 배 가까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고대 독립 국가였던 탐라국과 고려시대를 포함한 상고사 연구와 현대교육사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위논문 가운데서도 석사학위논문은 8편이 나온 데 비해 박사논문은

단 1편으로 전반적 학위논문의 결과물이 부진한 상황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단행본의 경우 3건의 연구결과물 가운데 1건은 사료를 정리한 것으로 순수하게 교육사학적인 연구물은 2건이다. 이 두 건의 단행본은 탐라시대로부터 근대까지의 제주향토교육사와 제주교육행정사로서 모두 통서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10년 단위 연구 상황

단위: 건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비고
학술지논문	1	7	17	11	1
학위논문	2		3	4	
단행본			2	1	
합계	3	7	22	16	

〈표 3〉은 이 49건의 연구결과물들을 학술지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별로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년 단위로 본 건수 분포이다. 이를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연구결과물이 적었으며 총 건수가 1990년대의 반도 못 미쳤고 1990년대 이후의 1/3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1980년대에는 학위논문이 나오지 못했고 단행본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나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들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사상 관련 연구들로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이나 탐라의 유학, 척사사상(斥邪思想)등을 다룬 것이 있었다.

둘째 교육행정 관련으로는 교육 관련 중앙의 정책(도서보급정책, 제주도교육사 형성 관련 선상·유배·출륙억제 등 제반 정책)과 시취제도(試取制度)와 같은 교육제도, 미군정·제1공화국·1960년대 이후 제주

교육행정에 대한 것들이다.

셋째 교육기관에 관련된 내용에는 교육시설 및 향교·서원·향사당·개량서당·일제시기 초등교육기관·신성여학교에 대한 연구 등이 있었다.

넷째 향토교육이나 여성교육, 우도 교육의 역사, 대정지역의 교학적 배경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다섯째 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로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비교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내용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은 유배인과 제주교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였고 향교나 서원 및 중앙의 각종 정책이 제주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 교육행정 관련 연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에 교육사를 단독 주제로 저술한 단행본은 아니나 제주교육사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김종업의 『탐라문화사』(1986), 김태능의 『제주도사논고(濟州島史論考)』(1982), 김봉옥의 『제주통사』(1987, 2000), 박용후의 『모슬포(募瑟浦)』(1989), 『남제주군지(南濟州郡誌)』(1978), 고병오와 함께 집필한 『원대정군지(元大靜郡誌)』(1968) 등 그리고 『대정고을』(1988), 『정의고을』(1987)과 같이 개인별로 집필한 향토사나 향토지에서도 제주도 교육사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서술을 한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IV. 제주교육사 연구의 과제

1. 제주교육사 연구의 문제점

지금까지 제주교육사의 연구현황을 검토해 보았다. 이상 살펴본 제주

교육사 연구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그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반적인 연구사의 흐름을 볼 때 관찬연구가 개별연구에 비해 더욱 체계적이고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었다. 개별연구가 연구의 깊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관찬연구는 연구의 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찬연구는 물론 개별연구도 통사(通史)류가 주를 이루어 단대사나 문제시중심의 저술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둘째, 자질과 실력을 갖춘 전문연구인력의 절대적 부족이 확인하였다. 관찬사나 학교지 및 향토지의 경우 지역 교육청의 연구 인력이나 학교 국사담당 교사 및 지역 사학자들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태반인 만큼 그들은 순수 교육사의 전문가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순수 교육사학자의 연구가 아직은 빈약한 상황이고 교육사 전공의 교육학 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제주학회(1978창립)가 제주도에 관련된 학문분야의 연구 열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설립되어 인문·사회·자연과학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보다 내실 있고 구체적인 연구와 지원이 요망된다. 또한 학위 논문과 같은 전문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교육학적 접근에서의 학위논문이 매우 부족하다. 관찬사의 경우 이상 제시했던 많은 현직 사학 관련 연구진들의 참여로 교육사의 저술이 대부분 역사학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증사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역사적 행위 역시 역사적 사상(事像)의 표명에 역점을 두면서 제도권내의 교육사 저술이 위주였다. 이러한 작업은 상당한 사료의 확보를 강요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사 연구의 기본적 한계인 사료의 부재로 연결 될 수밖에 없는바 지방교육사를 만들어 왔던 당대의 역사적 실존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연구대상의 시대와 내용면에서 공백이 많았고 분포가 고르지 못

했다. 특히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탐라상고사와 고려시대의 교육에 관한 연구가 적고 현대 교육사는 그 연구소재와 사료가 풍부함에도 결과물이 빈약하다. 이는 전반적인 제주교육사 연구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사료가 있거나 그 가치를 찾지 못하고 연구물이 적은 것은 우리의 제주교육사 연구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한정시킨다. 뿐만 아니라 근세의 조선시대나 근대의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 교육사 관련 연구 역시 아직도 많은 부분이 면밀히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주교육은 제주인들에 의해서도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이루어져 왔다는 관점의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조선시대와 개화기의 교육사에 관한 연구 가운데 대부분이 유배인들에 의한 교화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을 논하는 연구들로 제주교육사 형성이 제주도 내부적인 동인인 자생력보다 유배인들에게서 연유된 외부적인 동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다섯째, 아직까지 충분한 자료축적과 비교연구가 부족한 상태다. 그동안 제주교육사에 관한 연구들은 제주도 내에서 제주교육을 바라보는 비교적 협소한 안목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주교육사의 외연확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며 국내외 타 지역과의 비교연구가 미흡하다. 과거부터 현대까지 착실히 자료와 연구물이 축적되어 같은 시대 타지역의 교육사와 비교한다면 또 다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주교육사 연구의 질적 성장 현황은 주로 지역별·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주요 국가 혹은 다른 지역과의 교육사 비교연구는 지방교육사의 상대적인 격차를 확인하여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기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교육사 연구의 주제 및 현황과 연구인력, 연구자 및 시대에 대한 비교 분석은 현재의 제주교육사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여섯째, 역사 문헌 속에서 제주교육 관련 사료의 정리가 미흡하다. 2003년 제주삼읍 교학사료가 정리된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도권 내의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었고 좁은 의미에서의 교육을 담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중앙 중심의 관찬사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향후 연구과제

이상 제시된 제주교육사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중심으로 향후 제주교육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꾸준한 관찬연구와 더불어 개인연구의 폭과 깊이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결과물이 비교적 적은 탐라상고사나 고려시대 및 현대 제주교육사에 관한 연구들이 속출해야 할 것이다. 탐라상고사의 경우 제주도 특유의 문화와 신화를 교육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아울러 교육에 대한 의미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한국교육사적 맥락에서 단군신화를 해석하듯 제주도 수많은 신화나 문화에 대한 교육사적 접근과 해석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제도적 교육을 넘어서 생활사, 문화사적 맥락에서 교육을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제주교육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전문연구인력들에 의한 보다 깊이 있는 제주교육사 연구를 위한 준비 중 하나로 교육사 전공의 전문연구자 양성 및 확보라 할 수 있다. 각 시대별·주제별로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많으면 보다 다양한 연구물들이 생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교육사 연구와 관련하여 이 분야의 교육사전공출신 학자들에 의한 보다 전문성 있는 연구와 참여가 진행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의 상황으로 교육사 관련 학위논문이 산출될 수 있는 학과는 제주대학교 사학과와 교육대학원의 역사교육전공 그리고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학과 교육사전공에서 많은 연구결과물이 산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사를 연구할 인력이 부족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노력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제주 사람이 타 대학에서 제주 교육사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타 지역 사람들이 제주도 밖에서 제주교육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은바 앞으로는 연구 인력의 양성 및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학위논문으로 특히 박사학위논문으로서 보다 다양한 주제로,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주 교육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교육사 자료의 정리와 보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되긴 했지만 직접적 경험자들의 생생한 교육현실을 그대로 그릴 수 있는 현대 교육사 구술연구 역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한 지역의 역사와 인물, 교육사를 정리하는 의미는 선인의 기록을 남긴다는 데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에게 지역의 사료로서, 교육자료의 가치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현재 생전이신 역대 교육감들의 재직 당시 제주교육사에 대한 진술을 받아 기록으로 남기고 연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어찌면 당시 제주교육의 중심에 있던 그들의 기억과 구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잊혀지지 않고 정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 연구대상의 시대나 내용면 분포에 있어 보다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로 제일제주인을 비롯한 도의 제주인들의 교육사를

제주교육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제일제주인의 경우 국외의 가장 큰 제주인 커뮤니티로 그 교육의 역사를 제주도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와 개화기 교육사 연구는 주로 유배인이라는 특정 내도집단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교학활동을 규명하는 작업이 있어왔다. 이와 더불어 이제는 제주인들의 자생적 교육력도 규명하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제주교육에 영향을 미친 내재적 요인을 발견해내는 연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즉 제주교육에 영향을 미친 제주인들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교육에 영향을 미친 이기온(李基濼)·고득종(高得宗) 등 그리고 개화기를 전후하여 제주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응호(李膺鎬)·홍종시(洪鍾時) 등과 일제 강점기 제주교육에 영향을 미친 고순흠(高順欽)·김문준(金文準)과 같은 사람들의 교육적 행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제주교육사의 내적인 동인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외 제주관련 문헌에서 제주교육사 부분을 추출하여 정리하는 문헌 정리 작업도 병행하여 후학들에게 연구의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 제주교육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직간접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전에 있으므로 보다 빨리 그들을 인터뷰하여 구술 자료로 남기고 또 의식적으로 교육사 관련 기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연구방법의 다양화 및 새로운 연구 작업으로 자료 축적과 비교연구가 요청된다. 지방교육사라 하면 기본적으로 중앙중심, 왕조중심의 교육사에 상대되는 말로 중앙집권의 문화를 고집해온 우리는 지방의 사료 보존을 할애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사를 연구함에 있어 1차 문헌의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치게 마련이었고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야만 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1차 문헌이 극히 빈곤한 조선시대 이전의 경우 교육의 의미에 대해 보다 넓은 의미의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단순한 제도권이나 인물사 중심의 서술이 아닌 생활사·문화사에 대한 접근을 통해 파편적인 자료들을 모으고 숨겨진 의미를 찾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당대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섬세하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한 가운데 교육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축출해 내는 해석학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한 관찬문헌만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의 시나 시조, 당대 제주도를 방문했던 이방인들의 풍토록이나 견문기 등과 같은 체험문학작품 역시도 중요한 사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분야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는 것은 다른 분야에 대한 자료적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현재의 교육학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의 흐름을 인지하여 새로운 대상을 찾고 미진했던 부분의 연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서 및 논문간행과 관련된 지원을 결정해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철저한 심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발간된 저서 및 논문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들은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창조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김진호, 서태원, 2002; 162). 이러한 사실은 1차 사료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조선시대나 그 이후의 역사시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지방교육사의 사료부족이라는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교교육사적 접근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제시했던 49건의 연구물 가운데서 비교교육사적 접근은 단 1건으로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교육사에 대한 비교연구가 전부이다. 따라서 국내외 타 지역과 비교교육사적 접근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제주와 유배섬이라는 문화적 환경이 비슷했던 중국의 해남

도와의 비교연구나 재일제주인과 기타 해외 한민족 커뮤니티의 교육에 대한 비교연구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 문헌 속 제주교육 관련 사료의 정리와 함께 제주교육사 연구 성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제주교육사 연구 성과의 대부분이 제주지역 내에서 간행되며 배포도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지역의 연구자들도 쉽게 접하여 이해·연구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제주교육사 교육을 점검·확대하여 제주인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 더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향후 제주교육사 연구에 대해 아우구스투스의 말 ‘천천히 서둘러라(Fes tina Lente)’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얼핏 모순되는 말 같지만 천천히 하면서도 동시에 반드시 서둘러야 할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고개가 끄떡여지는 말이다. 점검과 성찰이 필요한 현재의 제주교육사 연구에 필요한 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V. 나가며

지속되는 연구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기 위해서는 연구결과들에 대한 정리 작업이 수시로 체계화 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성찰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이고 필요성 있는 연구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지방교육사로서 제주교육사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해 귀납적인 검토 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주교육사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1990년대 크게 활성화되었다. 지방교육사로서 제주교육사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긴 하나 연구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어 지방교육사연구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욱이 중앙중심의 왕조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사적 노력으로 제주교육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그만큼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제주교육사 연구에 있어 자료란 단지 문헌으로 된 자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 문화적 유적들과 장소, 구술로 전해지는 이야기 등 현장에는 아직도 우리가 찾아 그 교육적 의미를 밝혀야 많은 원형 자료들이 있다. 여러 형태로 전해지는 자료들이 사라져가기 전에 생명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제주교육사 연구의 노력들은 지방교육사로서 제주교육의 정체성을 살리고 제주교육만의 정신문화적 즉 교육사상사적 독자성을 인정하고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그 결과 제주도만의 독특한 정신문화가 잘 구현된 제주교육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해 냈으며 제주교육의 심층적 동인을 독특한 제주문화 및 중앙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제주도의 정체성을 교육사 및 교육사상사의 맥락에서 체계화하였다(양진건, 1986; 1991a; 1999; 2001). 뿐만 아니라 전근대시기와 근대의 연속성에 관한 교육사적 논의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타 지방교육사연구 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사는 연구역량의 부족과 다양한 연구방향 및 분야가 개척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즉 정체성, 독립성 및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경향에서 이제는 통합적인 사관으로 바라보는 제주교육사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교육사를 단순히 제주도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제주교육사, 동아시아에서의 제주교육사, 나아가 세

계 속의 제주교육사를 바라보는 통합적이고 통섭적인 교육사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문의 핵심이 재외제주인 교육의 역사, 그 가운데서도 일차적으로 해외제주인의 가장 큰 집거지역인 재일제주인 교육의 역사에 대한 조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교육사를 바르게 보존하고 복원, 정리하여 가치와 의미를 찾는 작업은 곧 우리의 자신을 찾는 길이자 제주의 역사를 지키고 가꾸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영돈(1987), 『旌義고을』, 제주문화.
 김옥민 외(1962), 『濟州道誌』, 제주신문사.
 김종업(1986), 『耽羅文化史』, 조약돌.
 담수계(1954), 『增補耽羅誌』, 프린트版.
 박용후(1966), 『濟州島誌』, 백영사.
 박용후(1978), 『南濟州郡誌』, 상조사.
 박용후(1989), 『最南의 港都 慕瑟浦』, 제주문화.
 양홍식·오태용(1958), 『濟州鄉土記』, 프린트版.
 이만규(1988), 『조선교육사 I』, 거름.
 제주도교육위원회(1972), 『鄉土誌』, 제주도교육위원회.
 한치문(1973), 『耽羅實錄』, 韓進文化社.

2. 논문 및 저서

- 강석규(1978), 「제주의 향토교육의 사적 고찰: 조선조시대 이전의 향토교육」, 『교육 제주』 37호, 제주도교육위원회.
 강신표(1994), 「한국사회과학에서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7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강신표(1994), 「김해지역의 사회문화적 변동」, 『인문사회과학논총』 1집,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강신표(2001), 「한국문화와 영남문화」, 『영남학』 1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고효숙·양진건(1995), 「鄉土史學習의 內容選定과 組織」, 『탐라문화』 제15호, 탐라문화연구소.
 권인혁(1986), 「朝鮮後期 濟州島史 研究現況과 課題」, 『제주도연구회 濟州島研究』 제3집, 제주도연구회.
 김동윤(1999), 「제주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현대문학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20호, 탐라문화연구소.

30 耽羅文化 41호

- 김성수(2008), 「탐라문화 연구의 발전방향, 지역 특권화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 『탐라문화』 제33호, 탐라문화연구소.
- 김영돈·신행철·강영봉(1982), 「解放後 濟州研究概觀-語文學 民俗分野」,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耽羅文化 創刊號』, 탐라문화연구소.
- 김영돈(1984), 「제주도연구의 필요성 : 민속학적 측면에서」, 『濟州島研究』 제1집, 제주도연구회.
- 김은석(1999), 「역사학의 새로운 동향과 향토사」, 『제주도연구』 제16집, 제주도연구회.
- 김종업·권인혁·고창석·김용완(1983), 「解放後 濟州研究概觀-歷史·考古分野」,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耽羅文化』 第2, 탐라문화연구소.
- 김진호, 서태원(2002), 「서남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실학사상연구』 제23집, 무악실학회.
- 박찬식(1998),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연구』 제15집, 제주도연구회.
- 신용하(1986), 「새로운 鄉土史의 研究對象과 方法」, 『제주도연구』 제3집, 제주도연구회.
- 양성종(1991), 「일본에서의 제주도 연구 현황」, 『탐라문화』 제11호,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2000), 「제주방언의 제문제: 제주도 방언 연구 동향과 과제」, 『탐라문화』 제21호, 탐라문화연구소.
- 유철인(1996), 「지역연구와 濟州學: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13집, 제주학회.
- 이상철(1998), 「제주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연구』 제15집, 제주도연구회.
- 임효재(1986), 「濟州島 先史文化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제주도연구』 제3집, 제주도연구회.
- 장주근(1984), 「地域研究의 標本社會로서의 濟州島」, 『濟州島研究』 제1집, 제주도연구회.
- 전경수(1997), 「제주학 :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연구』 제14집, 제주도연구회.
- 전경수(1998), 「地域研究로서 濟州學의 방법과 전망」, 『제주도연구』 제14집, 제주도연구회.
- 제주방송인클럽(1996), 「濟州地方學의 研究와 發展方案」, 제주방송인클럽세미나.
- 조성운(2008), 「<탐라문화>연구의 발전방향 ; 지역 연구 모델로서의 제주학의 발전방향 : 탐라문화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

문화』 제32호, 탐라문화연구소

조혜정(1984), 「제주도연구의 필요성 :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濟州島研究』 제1집, 제주도연구회.

한용진, 정은정, 권혜정, 박주의(2010), 「학회지 분석을 통한 한국의 교육사 연구 동향」, 『교육사학연구』 제20집 제2호, 교육사학회.

한창훈(2008), 「<탐라문화>연구의 발전 방향: 제주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탐라문화』 제32호, 탐라문화연구소.

허남춘(2007), 「제주문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7 제주민속의 해 지정, 탐라문화연구소 40주년 기념 “동아시아속의 제주민속”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탐라문화』 제31호, 탐라문화연구소.

현길언(1997), 「제주학 연구 방법론 : 문학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14집, 제주도연구회.

부록

(1) 제주학 연구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정리

저자	연도/발표지	제목	내용	학문 분야
金榮敦 외	1982년 탐라문화 창간호	解放後 濟州研究概觀 -語文學 民俗分野	방언 구비문학 민속을 중심으로 해방후로부터 1970년대까지의 연구동향 논문목록 작성	어문학 민속학
金宗業 외	1983년 탐라문화 제2호	解放後 濟州研究概觀 -歷史 考古分野	통사류를 비롯해 상고시대로부터 조선시대, 근대까지의 연구를 정리. 목록 정리	역사학 고고학
1983년 11월 第2回 耽羅文化學術會議 :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				
金宗業	1984년 탐라문화 제3호	歷史學的 側面	역사학적 측면으로 제주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정리 (교육사 포함)	역사학
鄭永和	1984년 탐라문화 제3호	考古學的 側面	고고학적 접근으로 제주연구 동향을 정리	고고학
玄容駿	1984년 탐라문화 제3호	民俗學的 側面		민속학
李光奎	1984년 탐라문화 제3호	社會學的 側面		사회학
夫萬根	1984년 탐라문화 제3호	行政學的 側面		행정학
張籌根	1984년 제주도연구 제1집	地域研究의 標本社會로서의 濟州島	민속학의 경우를 들면서 제주무속의 상황에 대해 논의	민속학

金榮敦	1984년 제주도연구 제1집	제주도 연구의 필요성: 민속학적 측면		민속학
조혜정	1984년 제주도연구 제1집	제주도연구의 필요성: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문화 인류학
1986년 제주신문사와 제주도연구회 공동주최 제2회 학술심포지엄 : 濟州島史의 再照明				
慎鏞廈	1986년 제주도연구 제3집	새로운 鄉土史의 研究對象과 方法		향토사학
任孝宰	1986년 제주도연구 제3집	濟州島 先史文化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역사학
權仁赫	1986년 제주도연구 제3집	朝鮮後期 濟州島史 研究現況과 課題		역사학
1987년 11월 제주신문사와 제주도연구회 공동주최 제3회 학술심포지엄 : 濟州研究의 오늘과 내일				
玄平孝	1987년 제주도연구 제4집	濟州島方言 研究의 現況과 課題		언어학
全京秀	1987년 제주도연구 제4집	上古 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고고학
申幸澈	1987년 제주도연구 제4집	濟州社會研究의 展開와 課題		사회학
吳洪皙	1987년 제주도연구 제4집	제주도 聚落研究의 動向과 課題		
張聖洙	1987년 제주도연구 제4집	濟州觀光研究의 動向 및 展望		
1988년 11월 제주신문사와 제주도연구회 공동주최 제4회 학술심포지엄 : 國際化時代의 濟州島研究				

34 耽羅文化 41호

韓相福	1988년 제주도연구 제5집	濟州島에 대한 國際的 關心과 研究		
李仁圭	1988년 제주도연구 제5집	國際化時代의 濟州島 研究		
梁聖宗	1990년 제주도연구 제7집	日本에서의 濟州島 研究現況		
1989년 제주도사연구회 창립, 1991년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발간 : 1980년대 제주도사 회고와 전망				
金宗業 金東柱	1991년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1980년대 제주도사 회고와 전망: 總說		역사학
李清圭	1991년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考古學-토기연구를 중심으로		고고학
高昌錫	1991년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古代·高麗時代		역사학
權仁赫	1991년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朝鮮時代	교육사 관련 연구 목록	역사학
朴贊植	1991년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한말·일제시대		역사학
1996년 8월 제주방송인클럽 학술세미나 : 濟州地方學의 研究와 發展方案				
강신표		地方自治와 地方學의 研究		지방학
姜萬生		濟州 人文科學의 研究와 課題		인문과학

庚 喆 仁		濟州 社會科學의 研究와 課題		사회과학
庚 喆 仁	1996년 제주도연구 제13집	지역연구와 濟州學: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학
1997년 제주도연구 제14집 특집 :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				
전 경 수		제주학: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학
현 길 언		제주학 연구 방법론: 문학을 중심으로		제주학
1998년 제주도연구 제15집 특집 :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 II				
전 경 수		地域研究로서 濟州學의 방법과 전망		제주학
이 상 철		제주 연구의 성과와 과제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제주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	사회과학
박 찬 식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인문학적 측면에서	인문학적 측면에서 제주근현대사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	인문학 역사학
허 남 춘	2007년 탐라문화 제31호	제주문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		문화
조 성 윤	2008년 탐라문화 제33호	지역연구 모델로서의 제주학의 발전 방향 「탐라문화」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제주학
한 창 훈	2008년 탐라문화 제33호	제주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제주학
김 성 수	2008년 탐라문화 제33호	지역 특권화와 문화 화석화를 넘어서-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학		제주학

(2) 제주교육사 연구 성과 목록

〈탐라상고시대〉

- 강석규(1978), 「제주의 향토교육의 사적 고찰: 조선조시대 이전의 향토교육」, 『교육제주』 37, 제주도교육위원회.
- 양진건(1996), 「탐라국의 유학수용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18집, 한국교육사학회.
- 양진건(1991), 「古代 濟州 教育行政史 研究草」, 『제주대학교 논문집』 33-1, 제주대학교.

〈근세-조선시대〉

- 고창석·양진건(1989), 「제주도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학활동연구」, 『탐라문화』 제9호, 탐라문화연구소.
- 고창석(1996), 「朝鮮時代 濟州의 私學-精舍와 鄉學堂을 중심으로」, 『제주도사연구』 제5집, 제주도사연구회.
- 김봉욱(1995), 「朝鮮朝 濟州 鄉校와 書院」, 『제주도사연구』 제4집, 제주도사연구회.
- 김유리(2012),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연구』 제40호, 탐라문화연구소.
- 김중업(1981), 「조선왕조에 있어서의 제주도 교육」, 제대신보 1981년 9월, 「조선시대 제주도의 교육과 시취제도」.
- 김해영·양진건(2009),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동인(動因)으로서 표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제23권 3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양진건(1986), 「朝鮮朝 濟州教育思想史 研究-道統을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제3집.
- 양순필·양진건(1987),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제6호, 탐라문화연구소.
- 양진건(1988), 「濟州 五賢의 教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제7호, 탐라문화연구소.
- 양진건(1989), 「화북의 교학문화-유배인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8호, 탐라문화연구소.
- 양진건(1992),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教學思想 研究」, 『제주도연구』 제9집, 제주도연구회.

- 양진건(1993), 「조선조(朝鮮朝) 제주도(濟州島) 교육시설(教育施設)」, 『탐라문화』 제12호, 탐라문화연구소.
- 양진건(1998), 「朝鮮朝 濟州島 技術教育 研究」, 『한국교육사학』 제20집, 한국교육사학회.
- 양진건(1999b), 「朝鮮朝 濟州教育史 形成의 政策的 動因」, 『한국교육사학』 제21집, 한국교육사학회.
- 양진건(2002), 「勉菴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研究」, 『한국교육사학』 24-1, 한국교육사학회.
- 양진건(2003),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5-1, 한국교육사학회.
- 양진건(2005), 「세종조 도서보급 정책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교육사상연구』 제16집,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양진건(2007), 「조선조 제주삼읍 향교의 신창, 중창, 이건에 關한 研究」, 『교육사상연구』 제19집,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양진건(2007), 「조선후기 제주교육에 끼친 척사논의의 영향과 그 의의에 關한 研究」, 『교육사상연구』 제20집,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양진건(2010), 「동계 정은 서원향배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제24집 2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양진건(2011), 「조선시대제주도주민의 이문화이해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濟州島住民의 漂流記錄을 中心으로」, 『한국교육사학』 제33권 9호, 한국교육사학회.
- 오송희(2001), 「朝鮮後期 濟州鄉校 運營實態」, 『제주도사연구』 제10집, 제주도사연구회.

〈근대-개화기, 일제강점기〉

- 양진건(1990), 「濟州流配人의 開化敎學活動 研究」, 『民族文化研究』 제23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양진건(1992), 「日帝下 濟州島 初等敎育 開設運動」, 『초등교육연구』 제1집, 제주교육대학 초등교육연구소.
- 양진건(1995), 「개화기 제주도 교육사 연구」, 『제주도사연구』 제4집, 제주특별자치도

- 양진건(1997), 「일제하 제주도 교육사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19집, 한국교육학회.
양진건(1997), 「제주도 최초 근대여학교, 신성여학교 연구」, 탐라문화 제18호, 탐라문화연구소
양진건(2004), 「日帝下 濟州島 學校設立運動」, 탐라문화 제24호, 탐라문화연구소.

<현대>

- 양진건(1997), 「미군정기(美軍政期) 제주교육(濟州教育)(1)」, 『탐라문화』 제17호, 탐라문화연구소.
양진건(1999), 「제1 공화국시대 제주교육행정사 연구」,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백록논총』 제1집, 제주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양진건(2005), 「濟州教育行政의 歷史的 整理」, 『학생생활연구』 제26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기타>

- 김용덕(1984), 「濟州島の 教育制度」, 『耽羅史研究』 창간호, 탐라문화연구소.
양진건(1991b), 「濟州島와 沖繩의 傳統教育 比較」, 『탐라문화』 제11호, 탐라문화연구소.
양진건(1994), 「濟州 牛島의 教育」, 『탐라문화』 제14호, 탐라문화연구소.
양진건(2001), 「유배문화와 제주도: 제주교육의 기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인류학연구』 제4집 3호, 한국교육인류학회.

<학위논문>

- 강석규(1976), 「濟州의 郷土教育의 史的考察」,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대현(1977), 「제주도 학교교육의 발전과정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인기(2011), 「조선후기 면암최익현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창규(1998), 「日帝下 濟州島 初等教育機關의 形成에 關한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송희(2001), 「朝鮮後期 濟州鄉校 運營實態」,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인홍(2006), 「고대사회의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진건(1991a), 「朝鮮朝 濟州 教育思想史 研究」, 단국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양철호(1999), 「天主敎의 傳來가 濟州 近代 女性敎育에 미친 影響」,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선영(2007),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대옥(2004), 「제주도 대정지역의 교육사적 전통」,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행본>

강석규(1994), 「탐라-근대의 제주향토교육사 : 탐라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제주향토교육의 사적고찰」, 전남대학교.

김지홍·원창애(2003), 「제주삼읍교회사료집」,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도서출판 화신문고.

양진건(1991), 『濟州敎育行政史』, 濟州文化.

양진건(2011), 「제주 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전경수(1999),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학교 출판부.

Abstract

The State and Tasks of History of Jeju Education

Jin, Hai-Ying* · Kim, Yu-Ri**

This research proposes the future direction and tasks of history of Jeju education as part of the regional history of education in reviewing and organizing the results of the past studies. First, we inductively reviewed the existing research on history of Jeju education, and then examined government-supported as well as individual studies, the periodic research, and every 10 year research state. Our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more government-sponsored studies than individual research, and the most research studied on the Jeju education in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Our finding also presented that there are more papers from the regional journals than the journals in outside of the providence or school theses. And reviews of every 10 year research condition suggested that the research work after 1990s accounts for about 2/3 of the total. So along with the constant work it concludes that the diversification of research topics and methods will be necessary by extending the depth and breadth of research. We believe that the identity and uniqueness of Jeju education will be established as the regional history of education through more research works, and eventually it will enable us to conduct more in-depth study.

*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Study on Jeju/Jejuology(濟州學), History of Jeju Education(濟州教育史), Regional History of Education(地方教育史), Government -Supported Study (官撰研究), Individual Study(個人研究).

교신 : 김유리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E-mail : yurikim12@naver.com)

논문투고일 2012. 06. 15.

심사완료일 2012. 07. 25.

게재확정일 2012. 08. 14.